



멈춰진 일상 딛고 신축년 희망을 고대하며

2020년 보도사진 연감
제주도사진기자회 발간
한라일보 등 4개 회원사
코로나 속 이슈 등 기록
다음 카카오프렌즈 전시



지난해 4월 29일 보도사진. '황금연휴'를 앞두고 18만 가까운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기록했다.

멈춰진 일상 너머 새 희망을 염원하는 보도사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제주도사진기자회(회장 강희만)가 지난 한 해 취재 보도한 결과물을 엮은 '2020 제주도사진기자회 보도사진연감'이다.



총 213쪽으로 구성된 이번 보도사진연감에는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사태와 마주했던 2020년의 제주가 오롯이 기록되어 있다. 2020년

1월 1일 보도사진에서 2021년 1월 1일자 보도사진까지 날짜순으로 배열해 2020년 제주의 이슈와 화제를 차례로 만날 수 있도록 짜여졌다. 제주에서 처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2020년 2월 20일 제주대병원 방역 작업, 3월 2일 공적 판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한 대기줄, 3월 24일 코로나 여파로 국내선 전 노선 운항을 중단한 어느 항공사의 발권 창구, 종교 시설도 예외가 아니었던 4월 12일의 '사회적 거리두기' 부활 미사, 9월 23일 코

로나로 생겨난 드라이브루 뿔소라 판매 행사, 12월 14일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어느 고등학교 풍경 등이 잇따른다.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5월 6일 4:3 트라우마센터 개소식, 9월 2일 태풍 마이삭 강타 등과 더불어 제주의 풍광과 자연 생태, 제주 사람들의 일상이 묻어나는 현장도 담았다. 이처럼 사진으로 한 해를 정리한 보도사진연감은 코로나가 밀어닥치기 전인 2020년 1월 1일 해 뜨는 성산일

출봉에서 쏘아 올린 화려한 불꽃으로 시작해 2021년 신축년 흰 소의 해를 상징적으로 포착한 사진으로 끝난다. 사진이 말해주듯, 어둠의 긴 터널 뒤편 새로운 빛이 있으리라.

연감에 수록된 사진들은 비대면 온라인 전시로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카카오프렌즈 페이지 '사진기자가 기록한 2020 제주'에 방문하면 된다. 제주도사진기자회는 3개 분야로 나눠 한 달 단위로 새로운 작품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이 전시는 지난달 25일 개막해 나올 만에 총 22만명이 접속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사진기자회는 현재 한라일보 강화만 기자와 이상구 기자, 제주일보 고희수 기자, 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뉴시스 우장호 기자가 활동하고 있다. 강화만 제주도사진기자회장은 "소속 회원들이 탐방용으로 기록한 생생한 사진들을 한자리에 펼쳐놓게 됐다"며 "올해는 비대면 전시 공간으로 영역을 넓혀 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시돌 테쉬폰 구법 특허 관리 필요”

60~70년대 70여 동 존재
제주 주거문화 변용 담겨
테쉬폰 활용·관리 지침을



성이시돌 목장 테쉬폰.

제주 테쉬폰 구법에 대한 정확한 규명 과 특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학연구원 연구보고서로 출간된 '성이시돌 목장 테쉬폰 주택 생활문화 조사'를 통해서다.

이번 연구는 이용규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가 연구책임 맡고 양성필(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박사 수료)씨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관련 문헌, 사진과 영상 자료, 면담 조사, 현장 실측조사를 통해 성이시돌 목장의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배치 특성과 형성 과정, 그 안에서 살았던 거주자들의 삶과 공동체 문화 규명에 나섰다.

테쉬폰 구법은 현수 아치 연속된 파곡(波谷) 모양의 셀 구조 건축을 일컫는다. 현수아치의 형을 비계 위에 섬유 거푸집을 설치 후 다시 시멘트 모르타르를 여러 차례 입혀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아일랜드 구조 기술자 제임스 윌러에 의해 고안됐다. 제주에는 맥그린치 신부(작고)가 안식년 때 고국인 아일랜드에서 도입해 성이시돌 목장과 개척 농가를 구현하는 절대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성이시돌 목장의 테쉬폰이 1960년대(형성기)와 70년대(성장기)에 70여 동이 있었음을 밝혀냈다. 1960년대 초 성이시돌목장 내에는 소규모 군집된 동사, 대규모의 단

일 동사, 직일 속소 등 용도에 따라 테쉬폰 구법의 건축물이 다양한 형태로 지어졌다. 지금은 23동만 남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대부분 50~60년 이상이 흘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주거 생활사적 측면에서는 서양식 주거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들여온 테쉬폰 구법이 조정과 순응 과정을 거치면서 제주에서 삶의 공간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테쉬폰 구법 건축물은 1960, 70년대에 서양과 육지, 제주 전통의 주거문화들이 절충되며 변용되어온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에서 제주의 주거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유산으로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시공방식 등 제주 테쉬폰 구법에 대한 정확한 규명 과 특허 관리를 제안했다. 또한 현존하는 테쉬폰 구법 건축물의 정밀 실측과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이들의 소유 관계와 향후 유지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주 테쉬폰 구법의 활용과 현존 테쉬폰 구법 적용 건축물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대학도서관 상호 이용 협약

제주대학교 도서관은 최근 제주국제대학교 도서관, 제주관광대학교 도서관, 제주한라대학교 도서관과 '제주 지역 대학도서관 학술자원 상호 이용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대학도서관들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도내 대학생들과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각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시설을 상호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 3개 대학도서관이 시작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월 1일부터 4개 대학 소속 이용자들은 대학 구분없이 자료의 이용과 시설 사용,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어린이 그림 그리기 입상작

제주도문화예술진흥원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기 어린이 그림 공모전' 입상작이 선정됐다.

미술창작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12점이 접수됐다. 그 결과 제주도지사상 6명(저·고학년 각 3명), 제주도의회위원장상 6명(저·고학년 각 3명), 제주도교육감상 6명(저·고학년 각 3명), 문예회관운영위원장상 40명(저학년 32명, 고학년 8명)이 뽑혔다. 입상작은 3월 20-25일 문예회관 제2전시실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학교예술강사 시수제한 조치 반발

월 59·주 14시간 제한 발표
“강사 생존과 교육권 위협
사전검열 등 반인륜적 행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예술강사 수업시간을 월 59시간, 주 14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제주 등 전국의 학교예술강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

예술강사노동조합 예술강사들은 지난 25일 진흥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수제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예술강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조치의 핵심내용은 수업계획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것, 시수제한을 초과하면 예술강사와 학교 협의에 따른 수업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학교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승인 없이 수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 학교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승인 없이 수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 학교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승인 없이 수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예술강사노조 제주지부의 이석진 지부장은 “학교예술강사들은 대부분 예술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는 것이다”라며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미 전국 8000여 개 학교의 학사 일정을 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뒤엎는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몰상식한 일이다. 제한시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술강사의 수업시간과 임금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예술강사의 생존과 교육권을 무너뜨리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주에서는 올해 국악, 연극, 무용, 만화애니, 영화, 공예, 디자인, 사진 8개 분야 113명이 도내 초·중·고교에 파견될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김순철의 'About wish 1504'.

한 땀 한 땀 실로 엮은 그릇의 위안

현인갤러리 김순철 초대전
한지에 채색과 바느질 작업

화면 위 실로 빛은 그릇이 자리 잡고 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도자기의 형상을 쌓아올리기 위해 쏟았을 무수한 시간이 절로 그려진다. 그 도자기에 희망과 바람을 담아낸 작품이 제주

전시장에 펼쳐지고 있다. 제주 현인갤러리(관장 김형무)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어가는 김순철 초대전이다.

이번 초대전은 '실로 엮은 담담한 바람들'이란 제목을 달았다. 김순철 작가는 한지에 채색과 바느질을 이용한 '어바웃 위시(About wish)' 연작으로 그 바람이 관객들의 가슴에 닿길 염원하고 있다.

바느질을 매개로 한 그의 작업은 실이 하나하나 집적되는 경로를 밟지만 되레 마음은 비워진다. 오랜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아있을 무의식의 내면을 끌어내 화면의 전면과 뒷면을 분주히 오가며 실 작업으로 껍데기 보던 어느덧 심적 평형의 상태에 이른다. 김 작가는 그 과정을 치유와 자정의 시간이라고 불렀다.

김 작가는 홍익대와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30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연락처 747-1500.

전선희기자

축하드립니다

취 임 **취 임**

탐라교육원장 **표선고등학교 교장**



송재우

1983학년도부터 1985학년도까지 3년간 저희를 지도해주신 송재우 교장선생님의 탐라교육원장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영구

송재우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NCLS 제주국제학교 교사로 재직하신 임영구 친구의 표선고등학교 교장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주제일고등학교 제29회 동창회
회장 **고규진** 의 동창일동

축 **축**

취 임 **취 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영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信川 康氏 耕濟公派 시흥 종친회 일동

축 **축**

승 진 **승 진**

저청중학교 교장



소대진

저청중학교 교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익산 소씨 문중회
회장 **소전형** 의 회원일동